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문화 공간 '상카르트 104'는 1874년 세워진 건물로 당초 관과 비석 등 장례용품을 만드는 공간이었다. 지난 3일 방문 당시 이곳에서는 팝아트 작가 키스 해링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파리=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럽은 지금 문화예술로 도시재생중

파리·베를린=김미은기자

파리·베를린 등 문화 접목 '공유경제' 바람

버려진 공간 미술가 등 몰려들며 공유·소통

'상카르트104'·'로베르네의 집' 명소로 탈바꿈

지난 4일 프랑스 파리 변두리 지역인 19구에 위치한 문화 공간 '상카르트 104'를 찾았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대형 거울 앞에 모여 춤을 추는 청소년들. 지하 공간에는 골판지를 소재로 한 대형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고, 멀리 보이는 광장에서는 키스 해링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상카르트 104'는 1874년 건축된 역사적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공간이다. 파리지 소유로, 장례식에 필요한 관과 비석 등을 제작하는 공간이었던 이곳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다 지난 2008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미술가들은 17개의 아틀리에에서 작업중이고, 지난해만 9개의 대형 전시회와 12번의 축제, 620회의 공연이 열렸다. 상카르트 104는 지역 문화기관들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을 대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파리 시내 중심가인 리블리가에 위치한 로베르네집(Chez Robert Libre)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공간이다. 1999년 예술가들이 14년 동안 방치돼 있던 7층짜리 건물을 점거했고, 젊은 예술인들은 개성 넘치는 전시와 퍼포먼스를 통해 '로베르네의 집'을 '예술 명소'로 변모시켰다.

현재 20개국에서 모여든 32명의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월 130유로·한화 약 20만원)를 내고 건물을 함께 나눠쓰고 있다.

파리 방문 전에 찾은 독일 베를린의 '베타하우스'(Betahaus) 역시 예술 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프리랜서들이 사무실을 나눠쓰고 있는 공간이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가 공유 경제다.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쓰는 개념으로 독

일 등 유럽에 비해 아직 역사가 짧은 국내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가 '공유 도시 서울'을 선포한 후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차, 집 등 물건과 같은 유형자산 뿐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지식 등 무형자산을 나누는 범위까지 확산중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지역의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모델은 무엇보다 재생 공간을 활용한 경우가 많은 게 특징이다. 동베를린의 대규모 백주 공장을 영화관, 공연장, 갤러리, 호텔, 예술 단체들이 활용하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쿨투어브라우어리와 페퍼베르크, 2차세계 대전까지 독일 영화의 분산 역할을 했던 우파 영화제 작소를 모태로 한 베를린 우파 파브릭이 대표적이다. 또 19세기 중반 프레드리히 윌리엄 4세가 지은 병원 건물

에서 출발한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쿤트레하우스 베타니엔 등도 버려진 건물을 활용한 사례다.

또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결합돼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주민 실업률이 3분의 1에 달하고, 청소년비호소가 가장 많은 나후 지역인 파리 19 지역의 '상카르트 104'는 개관 당시부터 예술적인 부분과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접목시킬 지 고민해왔고, 매년 150만명이 다녀가는 공간으로 키워냈다.

또 로베르네의 집의 경우 거주 예술가들은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작업실을 오픈, 파리 시민이나 관광객과 수시로 만나는 게 특징이다.

로베르네 집의 파스칼 포카르(52) 회계 담당은 "로베르네 집은 공간 공유와 개방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공간과 작업 과정 공개는 작가와 작가, 작가와 대중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광주일보에 오는 19일부터 서울과 파리, 베를린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특집기획을 연재한다. /mekim@kwangju.co.kr

연봉 3450만원 넘으면 세금 더 낸다

■ 박근혜 정부 첫 세제 개혁
근로자 434만명 증세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났다. 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 1인당 평균 40만6000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3천억원의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CTC의 도입, EITC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평균 2만~18만원의 세 혜택을 더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만의 증액이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회

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증강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하고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49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15개 법률을 8~9월중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연합뉴스

폭염 절정.. 광주·전남 최고 37.3도

전력수급경보 준비단계 발령

12일부터 예년기온 되찾을 듯

8일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37.3도를 기록하는 등 불볕 더위가 절정에 달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구례가 37.3도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다. 이어 ▲화순 36.5도 ▲함평 35.8도 ▲광주 35.7도 ▲곡성 35.6도 ▲광양 35.6도 ▲영광 35.2도 ▲완도 35.1도 ▲나주 35도 ▲장성 35도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넘어 숨막히는 맹렬 더위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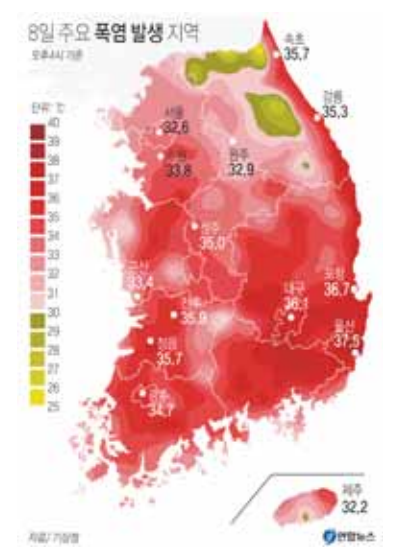
이날 오후 4시 현재 광주·나주·곡성·구례·장성·화순·광양·해남·영광·문성 등 13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담

양·고흥 등 나머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각각 내려졌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10분께 목포시 옥암동에 사는 김모(여·46)씨가 경련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하는 등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59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급경보도 발령됐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34분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kW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수급경보 '준비'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폭염은 11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



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서로 활성화돼 세력이 커지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물을 많이 섭취하고 옷을 가볍게 입는 등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확장·이전
문의 : 062)226-0001
Mercedes-Benz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 문의 :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도전! 제2회 해피니스 "극한 스포츠"

일출에서 일몰까지 (54홀 + 무제한 라운딩) 골프대회

제2회 해피니스 "극한 스포츠"

- 대회날짜 : 2013년 9월 1일 (일요일)
- 참가자격 : 남녀노소 / 선착순45팀(4인기준)
- 경기방식 : - 스트로크 PLAY 방식 3R(54홀) 샷건방식
- 레귤러 티 사용
- 희망자끼리 조편성 (4인)
- 접수기간 : 2013년 8월 8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접수 수 : 프론트 접수, 우편 및 팩스접수 가능
- 참가비 : 1인 100,000원 (1팀기준 40만원)

그린피/캐디피 별도

※입금계좌 : 농협 317-0003-0656-61
(예금주 : 해피니스컨트리클럽)
- 접수 마감 후 참가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우천 및 천재지변의 경우
- 골프대회 취소 (참가비 환불)
- ▶ 개인사유에 의한 환불 불가.
- ▶ 개인사유 중도 포기 시,
- 캐디피 (27홀단위/15만원)보장원칙.
- ▶ 5인플레이 불가능 (4인1팀)
- ▶ 주소 : 전남나주시 다도면 송학리1219번지
팩스 : 061-330-5009(5059)
전화 : 061-330-5000
- ※ 라운드 시작 전 간단히 드실 수 있도록 김밥과 원장국을 카트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 ※ 자세한 공지사항은 해피니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료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APPINESS 해피니스CC www.happinesscc.com

